

한국반	읽기	수업/ 숙제
-----	----	--------

한글 첫 수출, 인도네시아 부족 공식 문자 채택: MBC 뉴스데스크

◀ANC▶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말을 표현하는 글자로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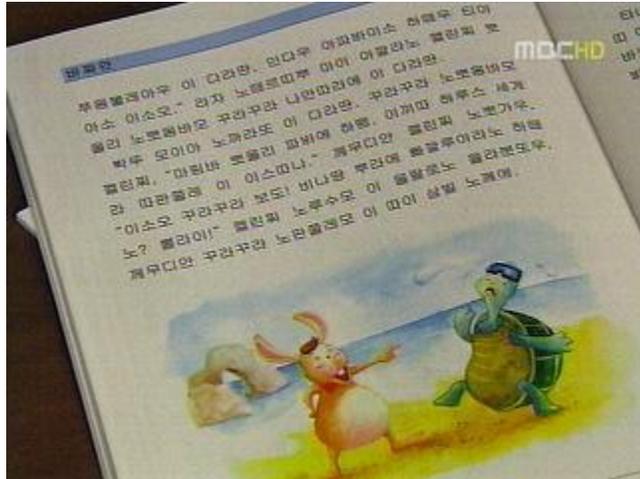
한글수출 1호 사례가 됐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글로 쓰여진 교과서를 들고 설명을 하자,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경청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아닌데 글자는 한글입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
바우바우시에 모여 사는
4만여 명의 짜아찌아족은
오래전부터 써온 고유어가 있지만
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도,
후대에 고유의 말을 가르칠 수단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훈민정음학회가
이들을 찾아 한글을 전했고,
마침내 한글이 공식문자로 채택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부족언어를
보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I N T▶ 이호영 교수/훈민정음학회, 서울대 언어학과
"이 언어는 한국어하고 발음도
좀 비슷한 소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음절 구조도
한국어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한글로 문자를 적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바우바우시는 앞으로
지역 표지판에도 한글을 표기하고,
한글로 된 역사책과 민담집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24 개 자음과 모음만으로
소리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 I N T ▶ 사르바르/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배우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한자나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전 세계 6천여 개 언어 가운데
문자를 지니고 있는 언어는 불과 3백여 개.

한글의 우수성을 잘 알리기만 한다면,
한글이 다른 민족의 문자,
곧 세계적인 문자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번 사례에서 입증됐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 노경진 기자

Reading & Comprehensions 숙제

1. 찌아찌아족은 왜 한글을 그들의 공식 문자로 채택 했나요?

2. 한글이 찌아찌아족의 언어(말)를 문자로 적기에 적당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3. 인구 4만의 소수민족의 한글 공식 문자 채택의 의의는 무엇이라 생각 하나요?
